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3 호 [루계 제 25897 호] 주제 107 (2018) 년 1 월 23 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

###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의의있게 기념할데 대하여

주체 37(1948)년 2월 8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었다.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주체 37(1948)년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신 주체 21(1932)년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로 할것이다.

2. 2월 8일을 2. 8절(건군절)로 할것이다.

3. 각급 당조직들은 해마다 2월 8일을 계기로 인민군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다채로운 행사를을 의의있게 조직할것이다.

4.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조선인민군창건일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할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주체 107(2018)년 1월 22일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중을 위훈에로 고무추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

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

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

로 난국을 막고 사회주의건설

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것처

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에

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 평안북도당 위원회에서

기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내려가 일군들

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

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

제전선전방에서 활성화의 둘파

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각

급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

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

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안의 경제지도일군들이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깊

이 제들한데 맞게 도의 경제발전

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작전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적임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 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각급 당조

직들에서 전투장마다 시대정

신을 반영한 구호, 표어들과 선

전화, 속보판, 영예계시판, 경쟁

도표들을 게시하고 선전선동사

업을 확선으로 활발히 벌려나

가게 하고있다. 그리고 도에 출

단, 도에 출신전대, 도작가동맹

위원회, 시, 군기동에 출신동대,

집중강연전대, 대내외 출신동대

를 비롯한 모든 선전선동력량

과 수단들을 중요전투장들에 집

중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

되새겨 주면서 활성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신의 주경기장개인을 확장해 공사장과 신의 주김치 평안북도당위위원회와 남포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중을 위훈창조에 힘 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해 벌리고 있다.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일군들이 일군을 빙내고 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내려가 노동자를 당정책 판찰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

직사업을 활성화해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해 벌리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은 신년사에 달려온 대내외로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은 일군을 빙내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을 세우고

#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시여

보통 강바에 있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회회무기전시장에는 50년전 우리 인민대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걸박되어 있다.

그것은 미제의 폐 배의 력사를 증명하는 동시에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힘매를 끊고 놓아나기만 한 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밟고 설쳐대는 미국은 절을마다 통쾌하게 죽여대기만 한 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역사는 어제를 통해 오늘과 평일을 비쳐주는 거울이다.

주제 57(1968년) 1월 23일 오전 조선동해의 력도로 부터 7.6mile는 해상에서 한척의 배가 발견되었다. 배에는 아무런 적표식도 없었다.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국군침정들은 정체모를 때에 접근하여 국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배는 도망치려고 시도하면서 우리 해군침정에 도전하였다가 기관총사격까지 하였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인 풍화국영웅 박인호동지는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분격한 우리 해병들은 즉시 대응사격을 하였습니다. 저와 6명의 수색조원들은 정체모를 배의 선미 갑판으로 재빨리 뛰어올라 놀드의 무장을 단숨에 해제하고 배를 나오았습니다.»

그 배가 바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였다.

미국은 최신식전자장치와 현대적무장을 갖춘 이런 형의 전문적인 무장간첩선이 원래 3척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리버티»호로서 1967년 중동전쟁에 파괴되었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어 당시 남아있게 된 것은 그 자체선이라고 하는 «버너»호뿐이었다고 한다.

정량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전조된 «푸에블로»호는 미해군이 «은은 제왕»이라고 자처하던 함선이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동해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상을 온 세상에 보도하였다. 미제가 «미국공민전쟁 이래 바다에서 탑재된 척 합선»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수치»라고 이우성을 친 «푸에블로»호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철의 명장 이시며 탈락한 군사전략기사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푸에블로»호 사건을 이렇게 벌여졌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철의 명장

이 질려 똑똑한 성명 하나 내지 못하였고 어느 한 나라에서는 «푸에블로»호를 뺄터 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기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제놈들의 죄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간첩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사죄하기 전에는 절대로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미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놈들과 맞서싸워야 하며 놀들을 물어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이것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우리를 확고히 지켜낼 수 있었으며 만미대결전선에 또 한계의 승리를

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미제는 무장간첩선을 나포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군동무들이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라고 치하하시였다. 그러면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 명예를 부수고자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군대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으며 만미대결전선에 또 한계의 승리를

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후안무치한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항쟁이 자기의 자백서에서 «내가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군동무들이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라고 치하하시였다. 그러면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 명예를 부수고자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군대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으며 만미대결전선에 또 한계의 승리를

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미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약 미제가 사죄하지 않으면 «푸에블로»호 선원 전원을 군사재판에 넘긴다는 최후통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미제는 조선반도주변에 접촉했던

무력을 끌어내고 사죄문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1968년 12월 23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요구대로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고 사죄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위대한 백두령장들을 높이 모신

영웅조선은 나리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미국의 사죄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제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민족대는 미제국 주인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신 역사적인

연설이 운행성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혁명

을 하시면서 우리는 미제의 침략자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의 가족한 신세는 그것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어떤 나라들에서는 잡특집



자위적인 국방공업발전에 살아온 리선의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 청천혁명사적지에서 -

본사기자 최충성 족

얼마 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월의 추위속에서도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과학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의 전초선으로 밀어붙는 당의 의도를 향상 명심하고 높은 리상과 꿈을 암고 눈부신 과학연구 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뜻깊은 그 날을 그려 볼 수록 1999년 1월에 새겨진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파고든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

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과 뜻 깊은 1월에서 위대한 혁신의 일

지를 보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 달에 걸쳐 판문점

당판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혁명

을 하시면서 우리는 미제의 침략자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의 가족한 신세는 그것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어떤 나라들에서는 잡특집

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제 8(1999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원(당시)을 험지지도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과학원

구사업 정형을 구체적으로 해료

하시었으며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해역에서도 잠하지 않고 광동부 해양 조종사들로부터 미제의 최신간첩선들을 이

룩하고 주제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퍼

하였고

우리 과학원에 찾아오셨다고 세

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과학원에 찾아왔다

고 세상에 대고 큰소리를 치자고 그런

다고 술직한 짐정을 더놓았다.

그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내가 새해의 첫



# 고향땅의 래일을 위해 한생을 바친 농촌혁명가

봉천군 봉암협동농장 제6작업반장이었던 리찬일동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사회생활의 첫 자욱을 내디딘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든 고향 땅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 땅원으로 끌어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깊고 깊이 바친 한 농촌혁명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한다. 그는 봉천군 봉암협동농장 제6작업반장이었던 리찬일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일상에서 허시하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과거를 위한 오늘에 살자는 인생관, 신념을 가지고 주체혁명원의 중국적 습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벼 이삭이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봉천군 봉암협동농장 제2작업반에 한 청년이 배치되었다.

작업반장이 그 청년을 반원들 앞에 내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보병네 집 밖이오니 모두들 잘 도와주어야겠소.』

그가 바로 중학교를 갓 졸업한 리찬일동무였다.

아직은 그의 가슴속에 어떤 불길이 머물고 있었던지 누구도 몰랐다.

그해 1월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농업대회가 성대히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농촌 테제 발 표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전개된 대회소식에 접한 온 나라 농업군로자들은 크나큰 걱정으로 설레었다.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농업생산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라우는 최고의 기록을 창조하였다고, 농촌경기발전에서의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더욱 천리마조선에서만 있을 수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두려움에 철석

같이 웅진 영웅적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이어수령님의 연설은 봉암땅의 작은 가정에도 크나큰 환희를 가져다 주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351 고지에서 원수를 무찔러 많은 우종을 세우고자 제 자랑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냥 『이보계 보령』이라고 불리우는 리찬일동무의 아버지 맏아들을 끌어들여 참된 주인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작업반에는 농사일에 뛰어들고 고향땅을 남들이 부려워 하게 꾸려보자고 했다.

작업반에 대 한 애착이 없어서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작업반원들을 땅에 막은 힘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작업반에는 농사일에 열성을 내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다.

당놓을 일으키고 이프다는 평계로 일도 잘 나오지 않던 청년은 결국 작업반원들로부터 따돌리우게 되었다.

초급일꾼들은 그를 아예 작업반에서 내보내자고 했다. 그들에게 리찬일동무는 말하였다.

『봉무들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면 고개를 끄덕여 승인하길 바랍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종일 작업반과 함께 일한 청년이 밤비리에 나란히 누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반장도 날 교양하려 했지요. 하지만 전 아직 그 모양입니다. 반장동진 정말 제가 모범농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업반에 연구소에서는 농업생산에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집으로 놓은 연단에서 우는 경기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손을 꼭 잡고 한뜨락에서 살아보자고 하면 반장동진을 정말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부터 소판리를 막았습니다.

리찬일동무는 늘 말했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거리를 냄비를 끓여놓은 후 냄비를 끓여놓은 그의 생각은 깊었다.

『이루무도 봉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날 리찬일동무는 늘 말했다고 한다.

고향은 어머니나 같다. 어머니를 끓여놓은 그의 생각은 깊었다.

그는 그의 고향을 사랑하는 그의 생각은 깊었다.



